

정부, 빈곤층 소득 늘었다는데...실질소득은 8년만에 최저

정부 "하위 20% 가구 소득 증가세 전환"...물가상승 미반영

하위 20% 실질소득 '6분기 연속 감소' 통계 작성 후 처음

청와대와 정부가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2분기 가계소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분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의적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소득을 따져 보면 1분위 가구 소득은 올해 2분기 126만3000원에 불과하다. 8년만에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이며 2017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

다.

27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보면(이하 '실질소득')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12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1%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명목소득 132만5000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서민들의 생활 형편을 따질 때는 명목 소득보다 구매력과 직결되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

1분위 실질소득은 최근 6분기 연속 감소한 것도 하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후 처음이다. 또 올해 1분위 가구 소득은 2분기 기준으로 2011년 후 8년만에 최저치다.

1분위 가구 실질소득은 2003~2011년 110만~120만원대를 거쳐 조금씩 오르다가 2015년 2분기에는 148만7000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2017년 2분기에 모두 139만원 언저리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2018년 2분기에 127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이는 통계를 살펴본 2003년 이래 최대폭이다. 급락한 1분위 가구 소득은 올해 2분기 126만3000원으로 더 떨어졌다.

'감소폭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이미 6~7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상태에서 감소폭이 줄었다는 것을 소득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청와대는 25일 통계 내용을 언급하며 명목소득만 보고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이 1년만에 플러스영역으로 이동해 왔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4~5년, 5~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소득이 오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석은 실질소득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문제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명목소득을 보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분위 가구 소득은 2분기 기준으로 2017년 143만5000원에서 2018년 132만5000원으로 7.64%나 떨어졌다. 이는 역시 2003년 이후 최대폭이다. 올해 2분기에 명목 소득이 132만5000원으로 0.04% 오르는 것은 소득은 5~6년 전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정부가 '명목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든지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현 정부 경제정책의 영향권인 2018년 이후로 현

저하게 떨어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이후 1분위 소득수준이 한 단계 낮아졌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 가구 소득의 감소폭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2017년까지 유지되던 1분위 소득 수준이 2018년 이후 낮게 유지되는 건 소수성 정책의 영향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근로소득이 15%나 줄어 들면 단지 월급이 감소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되고 일자리를 잃었거나 일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순천 야생차, 세계 녹차 콘테스트서 특별상·금상

올해 14년째 개최...세계 각국서 103점 출품



순천지역에서 생산된 야생차가 '2019세계 녹차 콘테스트'에서 특별상과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순천 재래종 야생차 향토사

업단(사업단장 김수현)에 따르면 '2019세계녹차콘테스트'가 공익 재단법인 세계녹차협회의 주최로 22일부터 이틀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열렸다.

올해 14년째를 맞은 이번 콘테스트에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103점의 차가 출품됐다. 한국은 순천 야생차 향토사업단과 명인신광수차 등 21점의 차를 선보였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사업단의 '한국 야생꽃차 에디션'은 참가품목 중에서 1점만 선정하는 프런티어상과 금상을 함께 수상했다. 프런티어상은 상품의 개발 콘셉트

와 패키지 디자인의 우수성은 물론이고 선진적 기술을 이용한 상품에 수여되는 특별상이다.

또 명인신광수차도 '명인 신광수차 에디션'과 '티락 스티 티백' 등 2점이 금상을 받았다.

세계 녹차 콘테스트는 일본, 중국, 프랑스 등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의 향기, 맛 등 품질과 상품의 콘셉트와 명칭, 디자인 등의 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참신하고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해 차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확대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식은 11월7일부터 시즈오카그린시(시즈오카컨벤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세계차축제 행사 기간 중 있을 예정이다.



볼보 신형 S60 출시

2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모델들이 볼보의 중형 프리미엄 세단 S60을 선보이고 있다. 8년 만에 완전 변경된 3세대 S60은 직렬 4기통 T5 터보차저 기술린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론닉 변속기를 탑재했다. 판매 가격은 모멘텀이 4,760만 원, 인스크립션이 5,360만 원으로 인스크립션을 기준으로 미국 판매가보다 약 1100만 원 저렴하다.

후에 실으면 충전되는 '전동 스쿠터' 공개

현대·기아차, '아이오닉 스쿠터' 기반 성능 개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성능과 디자인이 개선된 자동차 빌트인 타입 전동 스쿠터를 27일 공개했다.

2021년경 출시될 신차에 이 전동 스쿠터를 선택 사양으로 탑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동 스쿠터가 차량에 탑재되면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활용해 자동으로 충전되고, 사용자는 목적지에서 충전된 전동 스쿠터를 꺼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전동 스쿠터는 10.5Ah 크기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약 2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될 예정이다. 3단으로 접히는 디자인을 적용해 크기가 작으며, 무게는 7.7kg으로 현재 동종 제품 중 가장 가볍다.

2017년 콘셉트 모델은 전륜구동 방식이지만 새로운 모델은 후륜구동으로 변경해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배치함

으로써 안정성과 조종성을 함께 높였다.

대기업 대졸 초임 4086만원...중소기업과 1300만원 차이

금융업계 4358만원 최대

대기업 대졸 신입직 연봉이 평균 4086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직의 초임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초임을 밝힌 125개 대기업의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기본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포함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금융업계의 대졸 신입직 초임이 평균 435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동일기업의 지난해 연봉(4308만원)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석유화학·에너지 업계의 대졸 신입직 초임이 평균 4264만원으로 많았고, 이어 △자동차·운수 4163만원 △제조 4089만원 △기계철강 4088만원 △조선·중공업 4050만원 △유통·무역 4004만원 순이었다.

이 외에 △건설(3993만원) △전기전자(3925만원) △식음료·외식(3880만원) △IT·정보통신(3767만원) 등의 업계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4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초임은 평균 2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봉 대비 0.8% 감소한 수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차이는 1300여만원이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GWANGJU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